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문순덕(제주연구원)·김석윤(제주대 강사)

Ⅰ. 서론

일반적으로 문화자원이라 하면 땅에 기초한 육상자원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와 같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지역인 경우 해양자원도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문자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교육사업, 어업유산 실태조사. 해양치유관광, 해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무형유산자원 조사·연구 측면에서 농경과 어로 등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조사에 이어 실태조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수산자원, 해양산업자원 등을 발굴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와서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역점을 두고 해양오염원 제거 문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조례 제정 등)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흔히 해양정책이라 하면 문화의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산업에 역점을 둔 경향이 강한데, 지금은 해양자원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수산자원이 지닌 고유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을 채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문화와 그 공동체를 유지해 온 사회·문화적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섬지역으로서 해양문화자원이 풍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며, 관광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도 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해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문화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섬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양문화자원의 가치 인식과 활용방안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인식 공유가 지속되어야 한다.

제주 도민들에게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주 해양문화자원 유형 분류, 현황 조사, 제주 도민들의 인식 조사 등을 거쳐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1]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이 연구는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문순덕·김석윤, 제주연구원, 2018)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현황조사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부는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주 도민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를 확인해 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으므로, 2018년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차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 도민들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여러 유형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 도민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2)]

조사방법은 제주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추출을 시도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2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분석은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제주도 해양문화자원 유형과 그 대상

1. 해양문화자원의 개념 정의

국가 또는 지역별로 문화와 자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문화자원은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의 문화자원은 제주도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축적되고 형성된 보편적 생활양식을 표출한 것으로 제주도의 특수성이 함축되어 있다. 문화자원이 해당 지역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전승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해양문화자원 또한 해당지역의 생활과 역사성, 전통성은 물론 지역민들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 된다.

해양문화는 해양과 관련된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역사, 민속, 문학 및 예술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하위 범주가 존재하고 공간개발 및 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홍장원 외, 2017: 2~3). 해양문화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즉 대양적 의미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는 연해, 근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섬지역 역시 해양문화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김창수, 2012:13).

이순자 외(2012:19)에서는 '"섬자원이란 '공간의 질'과 '생활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력과 유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르면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제주 도민의 의견 조사 내용은 크게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방향, 제주 해양문화자원과 관련된 정책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인식, 보존, 활용' 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고, 정책 추진 방향 부분은 일부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바다를 주요 활동공간으로 이용하여 파생된 산물들로 해안에 위치한 유형자원과 바다와 관련 있는 무형자원 일체를 해양문화자원으로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해양문화자원의 유형 분류

제주 해양문화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준거 도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 해양문화 유형 연구를 참조하여 제주도의 조건에 맞게 재설계 과정을 거쳐 제주 해양문화자원 유형으로 채택하였다.

해양문화자원의 범위와 유형은 연구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유형 분류를 참조하여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창수(2012:16)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을 해양사와 생활사 두 축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분류 내용을 보면 해양사 해양문화자원에는 선사시대 해양사, 해전과 해양사(해양방어체제, 해전), 도시와 해양사(포구 등 해양도시), 해운과 해양사(바닷길을 통한 교류문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생활사 해양문화자원에는 주민과 해양생활사(어촌사회, 어촌문화), 어업과 해양생활사(어로환경, 어로기술, 항해기술), 정신과 해양생활사(해양의례, 해양민요, 해양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2015 : 26~27)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을 문화유산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형 해양문화유산은 '해양사유산, 관방유산, 건축유산, 도자유산' 등으로 구분하였고, 무형 해양문화유산은 '어로기술유산, 항해유산, 해녀유산, 소금유산, 바다축제, 해양신화 및 설화유산, 공예기술'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 1>과 같이 섬자원의 유형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순자(2012)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양관광자원을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김준에서는 섬관광자원으로 경관자원(자연경관, 인공경관)과 인문자원(생활문화, 역사문화)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효정에서는 섬자원을 자연·생태자원, 인문자원, 산업자원, 레저스포츠자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서자원을 자연자원형, 인문자원형, 산업자원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섬자원의 유형 분류 비교

출처	기준 및 유형			내용
한국관광공사 (2005)	해양 관광 자원	자연자원		해안풍경, 해수욕장, 섬, 파도, 해양생물, 갯벌 등
		인문자원		사회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기구・시설자원 등
김준 (2008)	섬 관광 자원	경관 자원	자연경관	바다, 해안선, 파도, 해수욕장, 해식애 등 바위, 생물, 일출/일몰지, 섬 등
			인공경관	어촌, 어항, 선박, 등대, 해안도로, 마을숲, 낚시터
		문화 자원	생활문화	음식, 건물, 어법・어구, 마을의례와 신앙, 지역축제
			역사문화	해저유물, 지석묘, 입석, 산성, 봉수, 유배지, 비석, 건축물, 각종 고문서, 각종 전시관
김효정 (2009)	섬 자원	자연・생태자원		수산자원, 해수욕장, 해안육지식생, 방풍림, 경관 등
		인문자원		문화재, 축제 등
		산업자원		여객선 운항 현항, 어황 현황, 양식 등
		레저・스포츠 자원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크루즈, 요트 등
행정 안전부 (2009)	도서 자원	자연자원형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문자원형		문화재, 고유민속, 사적, 문화시설, 건축물, 예술품 등
		산업자원형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산업자원 채집・가공・운반시설

자료 : 이순자·장철순·박경현·장은교(2012 : 20~21)을 참조하여 재구성.

국내 해양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창수(2012)에서는 시간적 흐름과 공간, 문화(이용행태에 따른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사 유형에서 어촌문화자원의 경우 반농반어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준(2008)에서는 자원의 생성 배경과 이용행태를 중분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에 소분류를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효정(2009)에서는 생태환경을 포함하고, 해양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바다와 관련 있는 인문과 산업 전반을 다루었다. 행정안전부(2009)와 한국관광공사(2005)에서는 자원의 생성 배경과 이용행태를 기준으로 해양문화자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15)에서는 주로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 유형에 인문자원 유형의 세부 내용이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문화자원 관련 선행연구 비교 분석 결과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해양자원 유형은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해양자원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분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자연자원 유형은 명칭을 자연자원으로 하고 인공자원을 생활자원으로 분류하여, 해양생물과 관련된 내용은 생태자원 항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자연자원의 하위에 자연자원과 생태자원으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경관자원 분야에 포함된 등대 등은 활용의 측면에서는 산업자원으로 분류하였다.

해양자원 분류 기준은 해양의 특성을 1차 기준으로 정하고,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과 활용의 측면(이용자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분류하였다. 또한 인문자원의 경우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했다.

<표 2> 제주 해양자원 유형

유형	중분류	대상 자원
자연자원	자연자원	해안풍경, 해수욕장, 섬, 바다, 해안선, 바위, 일출 및 일몰지
	생태자원	수산자원, 해양생물, 해안육지 식생
인문자원	역사자원	역사적 인물, 문화재, 사적, 건축물, 지석묘, 입석, 진성, 연대, 등명대, 유배지, 비석, 건축물, 각종 고문서, 해안동굴진지
	생활자원	음식, 건물, 어법·어구, 마을의례와 신앙, 고유민속, 해녀, 불턱, 테왁
	문화콘텐츠	축제, 전시관, 문화시설, 민요, 예술품
산업자원	산업자원	특산품, 자원채집·가공·운반시설, 어촌, 어항, 선박, 등대, 해안도로
	해양관광 산업자원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크루즈, 요트

한편 <표 2>에 제시된 해양자원 유형 전체를 연구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 가운데 인문자원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자원의 경우 해양관광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넓게는 섬과 도시경관, 주거공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생태자원의 경우 생물자원·수산자원 보존과 육성을 위한 경제적 관점과 생물 보존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산업자원 유형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해양자원 유형 중에서도 인문자원 유형만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관련자원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소분류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3> 제주 해양인문자원 유형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역사자원	인물유산	역사적 인물
	방어유산	진성, 연대, 해안동굴진지, 환해장성
	건축유산	등명대(도대불), 등대, 산업시설(공장 등)
	기록유산	비석, 고문서(표해록 등)
생활자원	신앙유산	해신당, 영등굿, 해양의례(굿, 고사 등)
	어로유산	원(담), 테우, 포구
	해녀유산	불턱, 태왁, 물질옷, 물질도구, 해녀항일운동
	전승유산	민요, 설화
	생활유산	용천수, 소금밭(염전)
문화콘텐츠	전시관	(해양자원 관련) 박물관, 전시관, 체험시설 등
	축 제	해양자원 관련 축제
	콘텐츠	해양 관광상품 콘텐츠, 해양 영상물 등

3. 유형별 해양문화자원 분포 현황

이 절에서는 제주 해양인문자원[3] 유형으로 분류된 역사자원(인물, 방어, 건축, 기록 유산), 생활자원(신앙, 어로, 해녀, 전승, 생활 유산), 문화콘텐츠(전시관, 축제,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자원

해양문화자원 중에서 역사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은 인물유산, 방어유산, 건축유산, 기록유산 등이 있다.

역사자원 가운데 인물유산 대상자는 김정(조선 후기), 하멜[4] 정도로 볼 수 있다. 김정(1670~1737 ; 현종 11년~영조 13년)[5]이 1735년 제주목사로 부임했으며 2년 5개월간 재임했는데, 그 당시 화북포의 포구 증축 및 선창(船艙)을 축조하였다.

역사자원 가운데 방어유산에는 진성, 연대, 해안동굴진지, 환해장성 등이 있으며, 이 유산은 주로 전근대시기부터 근대시기에 지역 방어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① 진성[6]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별방진, 서귀진지, 화북진지가 있으며, 이는 문화재 보존 대상이다.

② 연대 23기는[7] 도지정 기념물(제23호)이다. 이 방어유산은 조선시대 어촌에 설치된 군사시설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방어유산인 봉수는 산 정상에 세웠고, 연대는 해안 가까운 높은 지대에 설치했다.

③ 해안동굴진지(등록문화재)는 대표적인 해양 방어유산이며,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 목적으로 건설된 인공동굴이다. 제주 송악산해안일제동굴진지(313호), 제주 일출봉해안일제동굴진지(311호), 제주 서우봉일제동굴진지(309호), 제주 사라봉일제동굴진지(306호) 등이 있다.

④ 환해장성(環海長成)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제주도의 해안을 따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10기가[8] 도지정 기념물(제52호)로 지정되어 보존과 정비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

3) 해양인문자원 중 제주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목록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2020)을 참조하였다.

4) 하멜(? ~1692)은 네덜란드인으로 조선시대 제주 표류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하멜표류기』가 있다. 이는 기록유산에 포함되지만, 하멜 일행이 제주 표류를 기념하는 '하멜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해양 인물에도 해당되므로 인물유산에 포함하였다.

5) 『탐라지초본(下)』(이원조 저, 제주교육박물관 역, 2008 : 77)에 따르면 김정은 직접 돌을 나르는 등 화북포 건설 공사를 진두지휘하였다. 즉 화북포의 포구가 비좁아서 익사자가 발생하자 김정은 관비로 군인을 동원하여 방죽을 쌓아 포구를 확장하였다.
김정은 제주목사직을 이임하고 화북포를 떠나기 직전에 쓰러진 후 화북관에서 사망하였다(1737년 9월 3일, 영조 13). 이에 1738년(영조 14) 화북동 주민들은 김정 목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봉공비(奉公碑)를 세웠는데, 현재 비문이 마모되어 글자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6) 진(鎭)은 변방의 방어를 위해 북변과 해안지대에 구축된 군사협정구역을 가리키므로, 진성은 왜구침입에 대비한 군사시설을 뜻한다.

7) 연대 23기에는 말등포연대, 협자연대, 천미연대, 소마로연대, 조천연대, 우지연대, 남두연대, 수근연대, 별도연대, 연동연대, 당포연대, 대포연대, 왜포연대, 함덕연대, 좌가연대, 종달연대, 애월연대, 귀덕연대, 배령연대, 두모연대, 산방연대, 서림연대, 오소포연대 등이 있다.

8) 환해장성 10기에는 곤을동환해장성, 별도환해장성, 삼양환해장성, 애월환해장성, 북촌환해장성, 동복환해장성, 행원환해장성, 한동환해장성, 온평환해장성, 신산환해장성 등이 있다.

해양 건축유산에는 방사탑, 등명대(도대불), 등대, 산업시설 등이 있다.

① 방사탑 17기가 문화재(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9] 방사탑은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하여 돌로 쌓은 탑을 가리키며, 축조 양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방사탑은 제주도 일원에 세워졌으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조한 공공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등명대[10]는 국가가 설치한 유인 등대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등명대는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었으며. 어촌에 전기시설이 완료될 때까지인 197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등명대는 돌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그 형태로는 원통형, 원뿔형, 사다리꼴형, 상자형 등 생김새에 따라 분류된다(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 304).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등명대 중에 고산리 등명대, 귀덕리 등명대, 구엄리 등명대, 북촌리 등명대, 김녕리 등명대, 우도(영일동) 등명대, 보목리 등명대, 대포동 등명대 등이 개축되면서 잘 보존되어 있다.[11] 이 외에도 원래 위치와 동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등 새롭게 재현한 마을도 있는데, 이런 등명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12]

<표 4> 제주도 등명대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건립연도
1	북촌리 등명대	북촌리 포구	1915년
2	보목동 등명대	서귀포시 보목동	1920년대
3	귀덕2리 등명대	귀덕2리 포구	1937년(추정)
4	고산1리 자구내 등명대	한경면 고산1리 자구내 포구	1941년
5	대포동 등명대	서귀포시 대포동 포구	1942년
6	우도 영일동 등명대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포구	1962년
7	김녕리 등명대	김녕리 포구	1964년(재축조)

어촌 포구에 건립된 등명대는 건축 양식과 축조 시기, 관리 주체 및 방법 등 당시 해양인문자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해양유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시설인 유인 등대의 출현으로 민간 등명대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마을에 따라 원형 보존, 복원과 재현 등을 통해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등명대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배제하고, 해안의 상징물로 인식하는 경우 포구와 떨어진 곳에 재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원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③ 등대의 역사를 보면 서양식 유인 등대는 1900년 초부터 항구에 설치되기 시작하

9) 방사탑은 '거욱대, 거왁, 답단이, 답대, 답' 등의 이칭이 있다. 방사탑은 어촌과 농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17기 중 어촌에 있는 것은 '몰래물마을방사탑 1호, 몰래물마을방사탑 2호, 골왓마을방사탑 1호, 골왓마을방사탑 2호, 골왓마을(이호동)방사탑 3호, 골왓마을방사탑 4호, 골왓마을방사탑 5호, 용수마을방사탑 1호, 용수마을방사탑 2호, 신흥리방사탑 1호, 신흥리방사탑 2호' 등이다.

10) 등명대는 도대불로 알려졌는데 마을에 따라 돌등대(고산리), 장명대(長明臺-구엄리) 등으로 불렸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항구 이용 목적에 따라 축조한 마을이 있는데, 이때 일본어인 도다이(とうだい)가 도대불로 남아 있다고 보기도 한다.

11) 이 연구에서는 문순덕·박찬식(2013)에 제시된 7개의 등명대 특징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2) 제주도에서 등명대(도대불)을 조사한 연구로는 이덕희(1997),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제주문화원(2008) 등이 있다. 또한 등명대를 건축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태일 외(2008)이 있고, 제주 근대역사문화자원으로 접근한 연구에는 문순덕·박찬식(2013)이 있다.

여 10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인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1903) 설치에 이어 제주도 우도등대(1906), 마라도등대(1915), 제주 산지등대(1916), 추자도등대(1981) 등이 설치되었다.

정부에서는「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기초하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인등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지정하여 전시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15)에서 관리하는 등대로는 제주도 4곳이 있는데, 이 중에 우도등대와 마라도등대는 2015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포함되었다.

<표 5> 제주도 등대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건립연도
1	우도등대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길 105	1906년
2	마라도등대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65	1915년
3	산지등대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1916년
4	추자도등대	제주시 추자면 영흥4길 43	1981년

등명대와 등대는 건축과 어로 환경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제주 근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으므로, 단순히 보존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산업시설(공장 등)로는 1930년에 건립된 제주식품공업사(통조림공장) 건물(대정읍 하모3리 소재)이 남아 있고, 한림읍 옹포리에는 일제강점기에 운영되었던 감태공장과 단추공장 터가 남아 있는 정도이다. 한림읍 옹포리에 있던 통조림공장 굴뚝(1928년 건립)은 그 일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멸실되었다(2018년 기준).

이 외에도 제주시 건입동과 서귀포시 송산동 등 항구 인접지역에 소규모 공장터가 있고,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이어서 해양인문자원의 무형적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 향후 근대 산업시설 목록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해양산업사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에 건립된 산업시설 중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양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 기록유산에는 비석, 고문서(기록물) 등이 있다.

① 해양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석에는 주로 공덕비가 있다.[13] 목사허공명휼민청정비[14]는 1815년에 건립되었으며, 제주시 도남동(정부종합청사 근처)에 있었는데 이 일대가 택지로 조성되면서 현재 해녀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김정 목사 선정비[15]는 1738년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글자가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해신지위(海神之位)

13) 비석 현황은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2000)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2) ; 서귀포문화원(2008) 등을 참조하였다.

14) 제주목사 허명은 1814년(순조 14) 해녀들의 미역 채취에 따른 수세(水稅)를 없애고 돈 900냥을 공용에 보태 쓰도록 하는 등 청렴한 관리로 기록되어 있다.

15) 이 비는 김정 목사가 화복포구에 제방을 쌓은 것을 기려 마을 주민들이 1738년에 비를 세웠으며, 그 후 비가 마멸되자 1957년에 비각을 세웠다.

는 1820년 건립되었으며 해신사(화북포구) 내에 있다.

울릉도출어부인기념비는 1956년에 건립되었으며, 울릉도로 출가한 해녀들의 고통과 후원금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해녀공덕비는 1962년 성산읍 온평초등학교 내에 건립되었다. 이 비에는 온평리 해녀들이 온평초등학교를 만드는 데 후원금을 납부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조국도총대장최영장군신위(祖國都統大將崔將軍神位)는 1970년에 건립되었으며, 최영 장군의 어로기술 교육 등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표 6> 해양인문자원-비석 현황

연번	비 명	소재지	건립연대
1	牧使許公溟恤民淸政碑	해녀박물관	1815년
2	使金公政(人)奉□□	화북포구	1738(1957)년
3	海神之位	제주시 화북1동(화북포구)	1820년
4	울릉도출어부인기념비	협재리 노인당	1956년
5	해녀공덕비	온평초등학교	1962년
6	祖國都統大將崔將軍神位	추자면 대서리	1970년

이 외에도 마을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용천수를 정비하고 봉천수를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한 공덕비, 재일동포들이 고향의 상수도 건설(1960~1970)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공적비도 있다. 또한 어장경계비(성산과 고성리), 고래공장표석(서귀포) 등 해양기록유산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석이 남아 있다.

② 해양 관련 기록물에는 장한철[16]의 『표해록(漂海錄)』이 대표적이다. 『표해록』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2009년 12월 2일). 장한철의 『표해록』 이외에도 제주 표류·표착을 기록한 『옛 제주인의 표해록』이[17] 남아 있어서 제주도와 동아시아국 간의 해상 교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양 기록물이 있다.

2) 생활자원

생활자원형에 속하는 해양인문자원에는 신앙유산, 어로유산, 해녀유산, 전승유산, 생활유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신앙유산에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18], 해신사, 복신미륵, 최영장군사당, 신당 등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해신사(海神祠, 도기념물 제22호)는 1820년(순조 20) 제주목사 한상묵이 화북포구를 드나드는 선박과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19] 해신사에서는 매년 정월(음력) 5일에 해신제를 지낸다.

② 복신미륵(도지정 민속자료 제1호)은 조선시대 만수사터에 있는 동자복과 해륜사터에

16) 장한철(長漢喆, 1744~?)은 1770년(영조 46) 12월 25일 과거시험을 보러 서울로 출발했는데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1771년 5월 고향으로 돌아와서 표류 기록문을 남겼다.

17) 『옛 제주인의 표해록』(김봉옥.김지홍 뒤침, 2001)에는 김배회의 중국 표류기(1471), 김비의 유규 표류기(1479), 김기손의 중국 표류기(1534), 강연공의 일본 표류기(1540), 김대왕의 (안남) 표해일록(1689), 이병익의 (중국) 남유록(1797)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2009).

19) 해신제는 1820년 경에 시작되어 해녀와 어부들의 제사로 변모되었는데, 최근 들어 화북동의 마을제(유교식 의례)로 정착되었다.

있는 서자복 2기를 가리킨다. 복신미륵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간신앙과 불교의 융합 형태의 신앙으로 변모되었다.

③ 최영장군사당(도기념물 제11호)에서 지내는 사당제(장군제)[20]는 추자면의 정기적인 의례이며, 대서리어촌계가 주관하고 있다.

④ 해녀와 어업인이 주로 다니는 신당(해신당 포함)은 73개소가 있다.[21] 2012년 조사 당시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멸실되거나 폐당된 신당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해녀들이 주관하는 의례로는 영등굿과 잠수굿이 있다.

어로유산에는 원(원담), 테우, 포구 등이 포함되는데, 이 유산들은 마을에 따라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거나, 재현되어 활용하는 정도이다.

① 원(원담)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어로시설이며, 주로 멸치(멜)를 잡았던 해양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바닷가에 원이 있던 곳을 복원하는 마을, 재현하는 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이호 모살원이나 금능리 큰원(장수콧원) 등이 있다. 금능리(한림읍 소재)에서는 이 원담을 이용한 '금능원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② 포구는 어촌마다 있는데 역사성과 보존성, 희귀성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활용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위미1리 앞개포구, 보목리포구 등이 있고, 이후 마을에 따라 개축하거나 새롭게 정비하면서 점차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③ 테우[22]는 주로 거름용 해조류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여름철 자리돔을 수확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이호테우축제는 전통 어로유산을 주요 테마로 하여 개최되고 있다.

해녀유산에는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15점), 불턱, 해녀항일운동 등이 있다.

①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민속자료 제10호) 등은 해녀박물관애서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고(2016. 11. 30.),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도 지정되었으며(2015. 12. 16.) '한국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2017. 05. 01.).

② 불턱은 축조하는 재료에 따라 돌담을 두른 곳은 돌담형불턱(돌로 울타리를 만든 불턱)이고, 시멘트로 직사각형 모양의 집을 지은 것은 시멘트형불턱, 현대식 건물은 해녀의 집(또는 해녀탈의장)이라 부른다. 해녀들의 노동환경이 달라지면서 어촌에 있던 돌담형불턱은 기능을 상실하여 지금은 일부 마을에만 남아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돌담형불턱의 구조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돌담을 일자형으로 쌓은 형태와 디귿자 모양(ㄷ)으로 쌓은 형태가 있는데, 타원형과 사각형 불턱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

20) 최영 장군(崔瑩 將軍, 1316~1388)은 1374년 8월 24일 묵호세력 징벌 차 제주도를 오가면서 추자도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추자도 사람들에게 어로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주민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당을 건립하여 '사당제'를 지내고 있다.

21) 해녀들이 다니는 신당(해신당, 본향당 등)은 2012년 조사 당시 73개 있었는데(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13). 이후 세부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테우는 뗏목의 일종이며, '떼베, 테위, 터우, 테' 등의 이칭이 있다.

③ 해녀항일운동은 1932년 1월 구좌읍과 성산읍을 중심으로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구좌읍 일대에서 해녀들이 230여 회차 시위에 연인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해녀항일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해녀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부춘화·김옥련(2003)과 부덕량(2005) 등을 해녀항쟁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23] 해녀항일운동을 포함한 제주해녀문화는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인문자원 중 전승유산에는 민요, 설화 등이 있다.

① 제주민요(국가지정 제95호)는 전수조교 1명이 지정되어 있다. 도지정 해양 전승유산에는 해녀노래(제1호), 영감놀이(제2호), 멸치후리는 노래(제10호), 삼달리 어업요(제21호) 등이 있다.

② 해양 설화(신화, 전설, 민담)는 풍부한 편이다. 제주도에는 바다와 관련이 있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삼성신화」는 제주 최초의 문헌신화이며, 무속신화인 「영등본풀이」가 있고, 용연과 용두암에도 이와 관련된 전설[24]이 전승되고 있다.

해양 생활유산으로는 용천수와 소금밭(염전)을 들 수 있다.

① 용천수는 대체로 해안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보존·활용되는 곳과 멸실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6)에 따르면 관리와 보존 가치가 가장 높게 조사된 대상은 93개이다.[25]

② 소금밭(염전) 중에 종달리 소금밭과 구엄리 소금빌레[26]가 유명하고, 그 외 어촌별로 운영하던 소금밭이 있었다. 현재 제주도 해양 생활유산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곳은 구엄리 소금빌레 정도이다. 이곳이 해양문화자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염부)이 양성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는 해양문화자원에는 전시관, 축제, 콘텐츠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해양인문자원은 1차 자원이 2차 자원으로 가공되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① 전시관(박물관)을 보면 제주도 등록 박물관 29개 중에 해양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있는 박물관은 6개 정도로 압축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해녀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세계조가비박물관(민간) 등이 있다. 등록 수족관은 제주해양과학관(민간) 1개가 있다.

---

23) 3명의 해녀항쟁독립유공자 흉상이 2018년 9월 해녀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었다. 또한 우도에는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와 강관순의 '해녀노래 시비'가 세워져 있다.

24) 용두암은 용의 승천과 관련 있는 전설이 있고, 용연은 기우제를 지냈던 이야기와 설문대신(설문대할망)이 물의 깊이를 실험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25) 용천수 선정 기준은 관리수준 및 보전가치 1등급 용천수, 표고 100m 이내의 용천수,해안거리 1㎞ 이내의 용천수로 정하고 93개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관전동물(애월읍 하귀1리 소재), 금산물(제주시 건입동 소재), 논짓물(서귀포시 하예동 소재) 등이다.

26) 소금밭은 모래밭에 조성된 염전을 가리키고, 소금빌레는 암반(빌레) 위에 조성된 돌염전을 뜻한다.

②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개최되는 축제는 2019년 기준 광역·지역 축제 28개 중에 10개가 있다.

<표 7> 2019년 해양문화 관련 축제 현황

연번	축 제 명	주최	주 관	기 간	개최장소
1	제주해녀축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축제 추진위원회	9월 (2일)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
2	우도소라축제	우도면	우도면연합 청년회	4월 (3일)	우도면 일원(천진항)
3	쇠소깍축제	효돈동 주민센터	효돈동연합 청년회	5~6월 (2일)	효돈 쇠소깍 해변 일원
4	삼양검은모래축제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위원회	삼양동연합 청년회	7월 (2일)	삼양 해변 일원
5	이호테우축제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연합청년회·연합부녀회	이호테우 축제위원회	8월 (3일)	이호동 이호테우 해변
6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	표선리마을회· 청년회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 추진위원회	7~8월 (2일)	표선 해비치 해변
7	금능 원담축제	금능리마을회	금능리마을회	7월 (2일)	금능 으뜸원 해변 일원
8	산지천축제	건입동 주민센터	산지천 축제위원회	9월 (2일)	산지천 일대
9	추자도 참굴비 축제	추자면 축제추진위원회	추자면 축제추진위원회	9월 (2일)	추자면 일원
10	최남단 방어축제	최남단 방어 축제위원회	최남단 방어 축제위원회	10~12월 (4일)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내부자료(2019).

③ 해양문화자원 관련 콘텐츠로는 해녀와 영등신을 활용한 작품들이 있다. 해녀캐릭터인 꼬마해녀 '몽니'와 '영등할망'을 주제로 한 영등돌이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바 있으며, 연극 「좀녜」, 창작뮤지컬 「호오이 스토리」, 영화 「물숨」, 다큐프로그램 및 해녀문화 콘텐츠 기반 VR(가상현실)체험 등이 있다.

Ⅲ. 제주 도민의 해양문화자원 인식 정도

이 장에서는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관련 항목의 중요도, 중요 유산),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방향(유산별 중요도, 우선 활용 유산분야, 유형별 활용 목적, 활용 용도, 보존을 위한 주체의 역할, 활용 주체) 등을 주요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27)]

27) 서론에서 밝혔듯이 제주 도민 의견 조사 결과는 22018년 자료이며, 여기서는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외 제주 해양문화자원과 관련된 정책인식(정책 역점에 대한 견해, 중점 정책 분야,

전체 응답자 305명(유효표본) 가운데 남성 159명(52.1%), 여성 146명(47.9%)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40대 85명(27.9%), 50대 77명(25.2%), 30대 60명(19.7%), 20대 40명(13.1%), 60대 36명(11.8%), 70대 이상 7명(2.3%) 등의 순이다. 교차분석에서는 60대와 70대를 60대 이상 43명(14.1%)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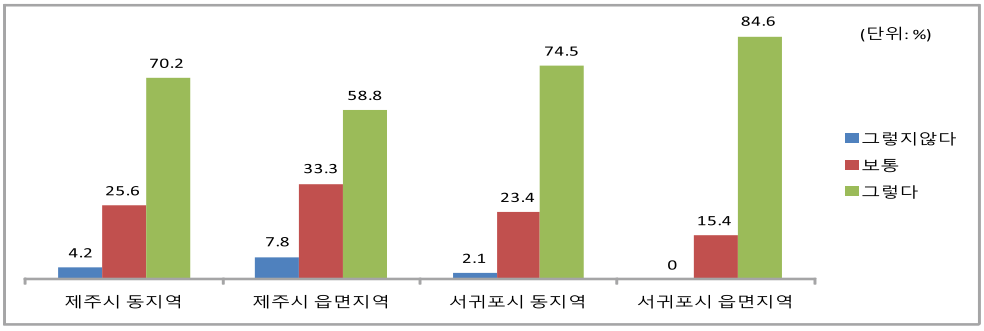
1.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제주해양문화자원이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에 대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 216명(70.9%), 그렇지 않다 12명(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인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에 대한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양문화자원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긍정 응답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제주시 읍·면지역이 58.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8> 제주인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

구 분	빈도(명)	비율(%)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1	0.3	3.9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	3.6	
보 통	77	25.2	
대체로 그렇다	127	41.7	
매우 그렇다	89	29.2	
합 계	305	100.0	



[그림 1]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의 지역별 인식

해양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과 관련해서 예술창작의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 해양문화자원이 예술창작의 기본소재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5.1%인 168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예술창작의 기본 소재에 대한 평균은 3.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가들이 해양문화자원을 제주도의 차별화된 작품창작

정책의 문제점, 정책 정립을 위한 중요 영역) 중에 가치 인식과 활용 방안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차용하였다.

소재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창작의 과정에서 해양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예술창작의 기본 소재

구 분	빈도(명)	비율(%)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3	1.0	3.6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4.6	
보 통	120	39.3	
대체로 그렇다	129	42.3	
매우 그렇다	39	12.8	
합 계	305	100.0	

또한 제주도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봤을 때 그렇다 203명(66.6%), 보통 87명(28.5%), 그렇지 않다 15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이상에 응답한 경우가 290명(95.1%)인 점을 보면,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된 제주 해양문화는 현재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

구 분	빈도(명)	비율(%)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4	1.3	3.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	3.6	
보 통	87	28.5	
대체로 그렇다	129	42.3	
매우 그렇다	74	24.3	
합 계	305	100.0	

따라서 해양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이든 예술창작의 소재 측면이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면 관련 자원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교육 및 학습의 장 제공에 대한 응답이 그렇다 189명(61.9%), 보통 100명(32.8%), 그렇지 않다 16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교육 및 학습의 장 제공

구 분	빈도(명)	비율(%)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3	1.0	3.7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	4.3	
보 통	100	32.8	
대체로 그렇다	127	41.6	
매우 그렇다	62	20.3	
합 계	305	100.0	

전체적으로 제주 해양문화자원 관련 항목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측정항목 4개 영역에서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주인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가 가장 높은 응답(41.7%)을 보여주고, '예술창작의 기본 소재'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42.3%) 나타났다. 이 응답 결과를 보면 정체성은 보편적인 제주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높은 반면, 예술창작은 대중적인 사업보다는 특별한 분야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12> 제주 해양문화자원 관련 항목 중요도 비교

구 분	정체성	예술창작	관광상품	교육학습
전혀 그렇지 않다	0.3	1.0	1.3	1.0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	4.6	3.6	4.3
보 통	25.2	39.3	28.5	32.8
대체로 그렇다	41.7	42.3	42.3	41.6
매우 그렇다	29.2	12.8	24.3	2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해양문화자원 가운데 중요 유산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의 대표적 자원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해녀유산 186명(30.8%), 방어유산 75명(12.4%), 생활유산 57명(9.4%), 축제 51명(8.4%), 기록유산 44명(7.3%), 신앙유산 39명(6.5%), 어로유산 37명(6.1%), 인물유산 33명(5.5%), 건축유산과 전승유산이 각각 27명(4.5%), 전시관 16명(2.6%), 콘텐츠 1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자원으로 해녀유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및 해녀축제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접촉 빈도가 높고, 행정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해양문화유산 가운데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방어유산은 도내 곳곳에서 정비된 방어유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선호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해양문화유산으로 지목된 콘텐츠는 이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고 콘텐츠로 가공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3> 제주의 대표적 해양문화 자원(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인물유산	33	5.5
방어유산	75	12.4
건축유산	27	4.5
기록유산	44	7.3
신앙유산	39	6.5
어로유산	37	6.1
해녀유산	186	30.8
전승유산	27	4.5
생활유산	57	9.4
전시관	16	2.6
축 제	51	8.4
콘텐츠	12	2.0
합 계	604	100.0

관광상품으로 활용되는 자원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해녀유산 158명(26.1%), 축제 100명(16.6%), 방어유산 64명(10.6%), 어로유산 47명(7.8%), 생활유산 42명(7.0%), 전시관 41명(6.8%), 신앙유산 32명(5.3%), 콘텐츠 31명(5.1%), 건축유산 27명(4.5%), 전승유산 25명(4.1%), 기록유산 21명(3.5%), 인물유산 16명(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자원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던 해녀유산이 활용 측면에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축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축제 개최 목적이 주민화합도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상품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관광상품으로 활용되는 자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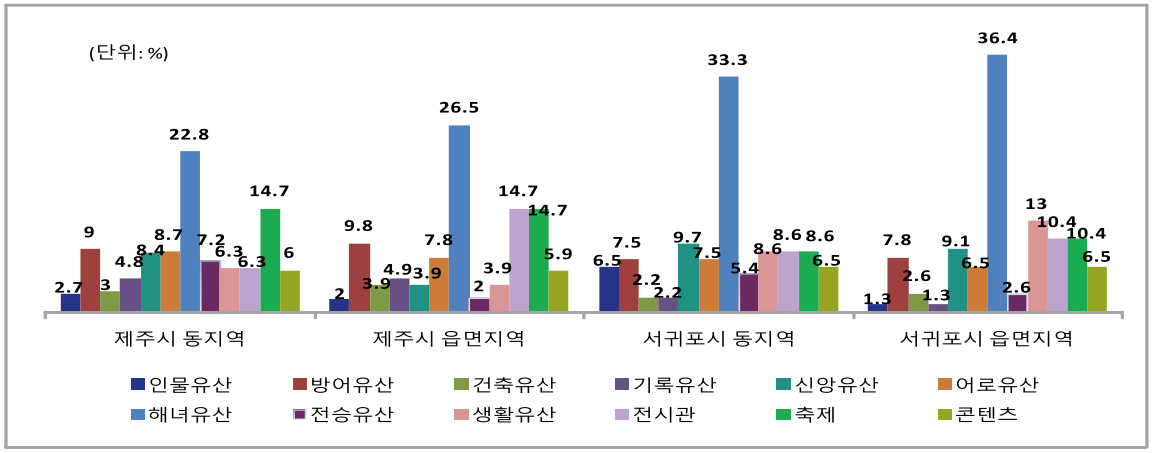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비율(%)
인물유산	16	2.6
방어유산	64	10.6
건축유산	27	4.5
기록유산	21	3.5
신앙유산	32	5.3
어로유산	47	7.8
해녀유산	158	26.1
전승유산	25	4.1
생활유산	42	7.0
전시관	41	6.8
축 제	100	16.6
콘텐츠	31	5.1
합 계	604	100.0

매력적인 제주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표 15> 참조) 해녀유산 162명(26.7%), 축제 80명(13.2%), 방어유산 53명(8.8%), 어로유산 49명(8.1%), 신앙유산 48명(7.9%), 생활유산 43명(7.1%), 전시관 40명(6.6%), 콘텐츠 37명(6.1%), 전승유산 33명(5.5%), 기록유산 24명(4.0%), 인물유산과 건축유산이 각각 18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분야가 해녀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원으로 선택된 것은 축제 개최 목적이 경제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지역별 교차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의 해양관련 축제는 대부분 읍·면 단위에서 하나 이상 개최되고 있으므로 관광상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자원의 매력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15> 매력적인 제주의 해양문화자원(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인물유산	18	3.0
방어유산	53	8.8
건축유산	18	3.0
기록유산	24	4.0
신앙유산	48	7.9
어로유산	49	8.1
해녀유산	162	26.7
전승유산	33	5.5
생활유산	43	7.1
전시관	40	6.6
축 제	80	13.2
콘텐츠	37	6.1
합 계	605	100.0



[그림 2] 매력적인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지역별 중요도

해양문화자원의 중요도를 3개 항목별로 비교했을 때 해녀유산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의 독창성과 정책적 지원, 언론 노출 빈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적 자원과 관광상품 활용, 매력적인 자원 간에 상관성은 있으나 관광상품 활용과 매력적인 자원의 상관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문화자원 중요도에 대한 항목별 비교결과 대표적인 해양문화자원으로 인식되는 유산(방어유산, 어로유산, 해녀유산)의 경우 관광상품 활용과 매력적인 해양문화자원 선호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경우 대표적인 자원에서 낮은 응답(8.4%)을 보이지만 관광상품(16.6%)과 매력적인 자원(1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축제 개최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시관이나 콘텐츠와 같이 발생 자체가 역사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표적인 자원(각각 2.6%, 2.0%)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둔 관광상품 활용(각각 6.8%, 5.1%)이나 매력적인 자원(각각 6.6%, 6.1%)으로 응답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생활유산의 경우처럼 대표적인 자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9.4%)을 보였지만 관광상품(7.0%)과 매력적인 자원(7.5%)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생활유산에 해당하는 용천수와 소금밭의 경우 많은 부분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현재 복원·활용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6> 해양문화자원 중요도 항목별 비교

구 분	대표적 자원 비율(%)	관광상품 활용 비율(%)	매력적인 자원 비율(%)
인물유산	5.5	2.6	3.0
방어유산	**12.4**	**10.6**	**8.8**
건축유산	4.5	4.5	3.0
기록유산	7.3	3.5	4.0
신앙유산	6.5	5.3	7.9
어로유산	6.1	**7.8**	**8.1**
해녀유산	**30.8**	**26.1**	**26.7**
전승유산	4.5	4.1	5.5
생활유산	**9.4**	7.0	7.1
전시관	2.6	6.8	6.6
축 제	**8.4**	**16.6**	**13.2**
콘텐츠	2.0	5.1	6.1
합 계	100.0	100.0	100.0

2.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방향

해양문화자원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2개 유산분야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이는데, 건축유산 분야가 다른 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15.4%)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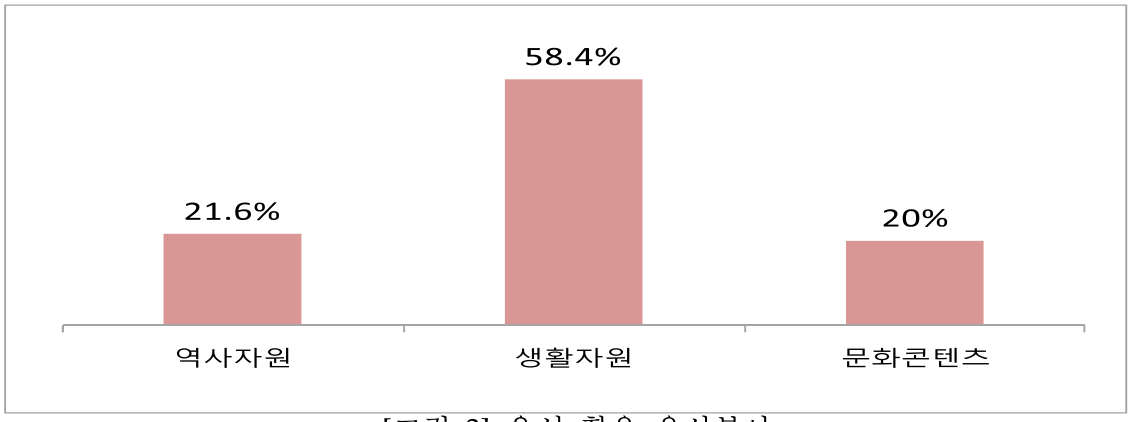
인다. 이는 건축유산에 포함된 등명대(도대불)처럼 지금은 사용되지 않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유산별 중요도 비교

구 분	인물	방어	건축	기록	신앙	어로	해녀	전승	생활	전시관	축제	콘텐츠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1.3	3.3	3.3	3.3	1.3	3.3	1.6	1.3	2.6	3.3	3.6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7.9	6.9	9.8	5.6	4.6	6.2	2.6	6.6	7.2	7.5	5.2	6.6
보 통	31.8	25.6	35.1	31.5	25.6	25.9	16.1	20.7	24.6	28.2	22.3	24.9
대체로 중요하다	41.9	38.3	36.4	40.3	39.3	37.7	35.7	39.6	38.4	41.0	44.9	41.3
매우 중요하다	17.7	27.9	15.4	19.3	27.2	28.9	42.3	31.5	28.5	20.7	24.3	2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우선 활용 유산분야 응답 결과 생활자원 58.4%(178명), 역사자원 21.6%(66명), 문화콘텐츠 20.0%(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문화자원의 우선 활용 유산분야에서는 생활자원 분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원 유산분야에 해녀와 어로유산 등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우선 활용 유산분야

성별 교차분석에 따른 우선 활용 유산분야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응답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은 문화콘텐츠 분야(25.2%)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역사자원 응답(26.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성별 우선 활용 유산분야

구분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총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여성	28(17.6%)	91(57.2%)	40(25.2%)	159(100.0%)
남성	38(26.0%)	87(59.6%)	21(14.4%)	146(100.0%)
총계	66(21.6%)	178(58.4%)	61(20.0%)	305(100.0%)

연령별 교차분석에서 우선 활용 유산분야는 20대(55.0%)와 30대(48.3%)는 생활자원 항목이 높기는 하지만 40대 이상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문화콘텐츠 항목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생활자원이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문화콘텐츠에서는 낮은 분포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콘텐츠에 대한 연령별 우선 활용 유산분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19> 연령별 우선 활용 유산분야

구분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	총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20대	8(20.0%)	22(55.0%)	10(25.0%)	40(100.0%)
30대	14(23.3%)	29(48.3%)	17(28.3%)	60(100.0%)
40대	16(18.8%)	53(62.4%)	16(18.8%)	85(100.0%)
50대	17(22.1%)	47(61.0%)	13(16.9%)	77(100.0%)
60대 이상	11(25.6%)	27(62.8%)	5(11.6%)	43(100.0%)
총계	66(21.6%)	178(58.4%)	61(20.0%)	305(100.0%)

현재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용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144명(24.0%),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112명(18.6%),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92명(15.3%), 해양문화자원 원래 모습대로 활용 81명(13.5%),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 77명(12.8%), 문화예술 작품 창작의 소재로 활용과 잘 모르겠다가 각각 45명(7.5%), 기타 5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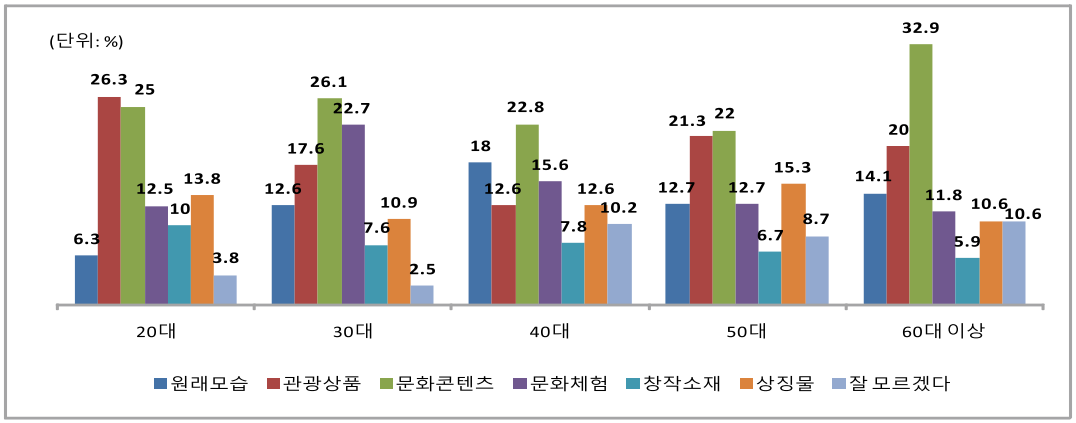
‘지역축제 및 지역 내 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항목이 1순위와 2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해양문화자원 활용 용도가 주로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0> 현재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활용 용도(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해양문화자원 원래 모습대로 활용	81	13.5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112	18.6
지역축제 및 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144	24.0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92	15.3
문화예술 작품 창작의 소재로 활용	45	7.5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	77	12.8
잘 모르겠다	45	7.5
기 타	5	0.8
합 계	601	100.0

연령대별 활용 용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60대 이상에서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32.9%), 30대(26.1%), 40대(22.8%), 50대

(22%)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대에서는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항목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26.3%)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20대와 50대는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와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항목에서 비슷한 분포(각각 25%, 22%)를 보이고 있다. 30대가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항목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22.7%) 이유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용 방안(프로그램)을 선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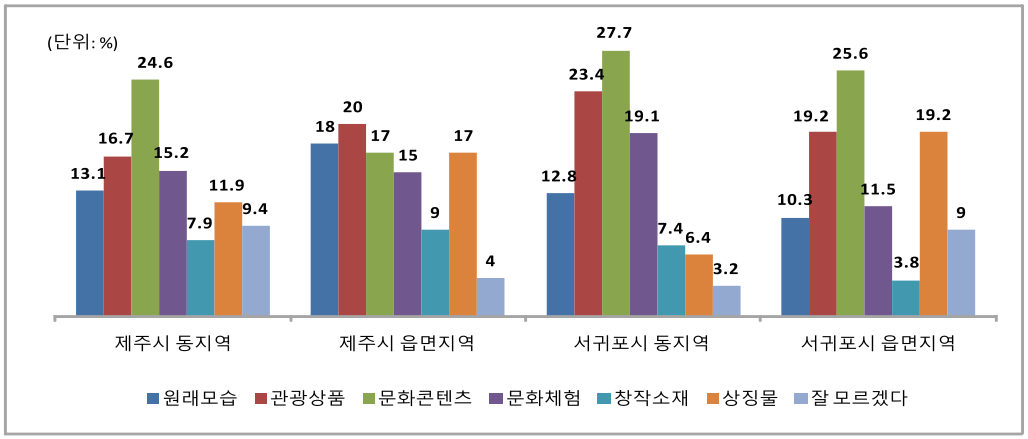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대별 활용 용도

지역별 활용 용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제주시 읍·면지역(17%)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귀포시 동지역 27.7%, 서귀포시 읍·면지역 25.6%, 제주시 동지역 24.6% 순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해양관련 축제 12개[28]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귀포시 동지역 2개, 서귀포시 읍·면지역 2개, 제주시 동지역 4개, 제주시 읍·면지역 4개이다. 제주시 읍·면지역이 서귀포시 읍·면지역보다 해양관련 축제 개최수가 많으나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과 '해양문화자원 원래 모습대로 활용'이 1순위와 2순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행사나 축제의 많고 적음보다는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여부가 활용 용도를 결정짓는 주요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문화자원 활용 형태가 적극적으로 자원을 재해석하고 가공하기보다는 원래 모습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본다.

28) <표 7>를 보면 2018년 도민 의견 조사 당시에는 12개였는데, 2019년 기준 10개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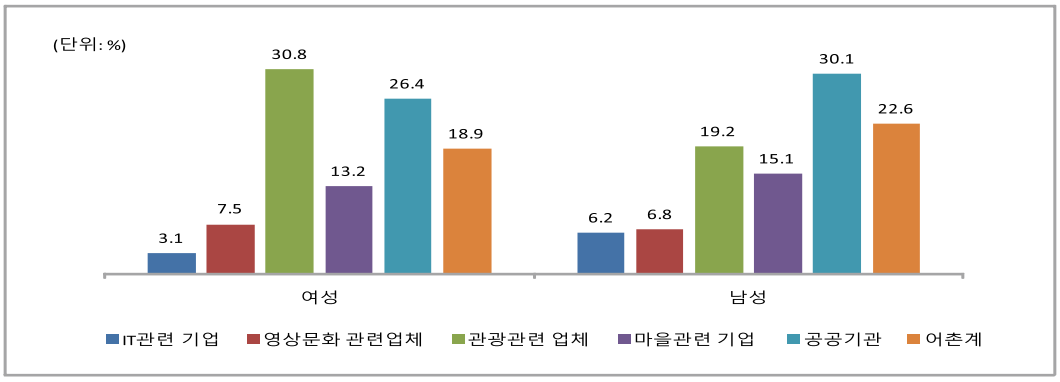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활용 용도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 공공기관 86명(28.2%), 관광 관련 업체 77명(25.2%), 어촌계 63명(20.7%), 마을 관련 기업 43명(14.1%), 영상·문화 관련 업체 22명(7.2%), IT관련 기업 14명(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주체

구 분	빈도(명)	비율(%)
IT관련 기업	14	4.6
영상・문화 관련 업체	22	7.2
관광관련 업체	77	25.2
마을관련 기업	43	14.1
공공기관(수협, 관광공사 등)	86	28.2
어촌계	63	20.7
합 계	305	100.0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은 관광관련 업체를 활용 주체로 선택(30.8%)하고 있으며, 남성은 공공기관(30.1%)을 활용 주체로 선호하고 있다.



[그림 6] 활용 주체에 대한 성별 인식

활용 주체에 대한 지역별 인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게(17.6%) 나타나고, 관광관련업체에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17.9%) 나타나고 있다. 활용과 관련해서 제주시 읍·면지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관광관련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2> 활용 주체에 대한 지역별 인식

구분	IT관련 기업	영상문화 관련업체	관광관련 업체	마을관련 기업	공공기관	어촌계	총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제주시 동지역	8(4.8%)	13(7.7%)	43(25.6%)	23(13.7%)	51(30.4%)	30(17.9%)	168(100.0%)
제주시 읍·면지역	4(7.8%)	3(5.9%)	18(35.3%)	4(7.8%)	**9(17.6%)**	13(25.5%)	51(100.0%)
서귀포시 동지역	2(4.3%)	2(4.3%)	9(19.1%)	9(19.1%)	14(29.8%)	11(23.4%)	47(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0(0.0%)	4(10.3%)	**7(17.9%)**	7(17.9%)	12(30.8%)	9(23.1%)	39(100.0%)
총계	14(4.6%)	22(7.2%)	77(25.2%)	43(14.1%)	86(28.2%)	63(20.7%)	305(100.0%)

향후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 원래 모습대로 활용 126명(20.8%), 지역축제 및 행사 문화콘텐츠로 활용 124명(20.5%),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123명(20.3%), 지역 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108명(17.9%), 문화예술 작품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 64명(10.6%),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 58명(9.6%), 기타 2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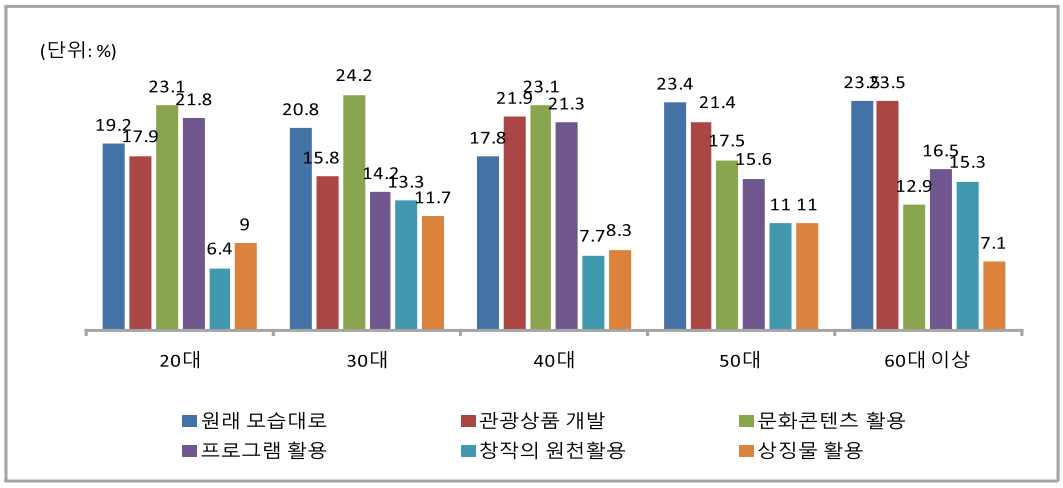
<표 23> 향후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향(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원래 모습대로 활용	126	20.8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123	20.3
지역축제 및 행사 문화콘텐츠로 활용	124	20.5
지역 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108	17.9
문화예술 작품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	64	10.6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	58	9.6
기 타	2	0.3
합 계	605	100.0

조사 결과 '원래 모습대로 활용',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축제 및 행사 문화콘텐츠로 활용' 항목이 고르게 상위에 분포하고 있다.

상위 3개의 항목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분석 결과 20~40대까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문

화콘텐츠로 활용'이 다른 2개의 항목에 비해서 높게 응답(각각 23.1%, 24.2%, 23.1%)하고 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원래 모습대로 활용'(각각 23.4%, 23.5%), '다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각각 21.4%, 2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를 경험하고,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향후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향(연령별)

3. 제주 해양문화자원 관련 정책 인식

여기서는 제주 도민들의 해양문화자원 인식 정도에 기초하여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보존정책 응답 결과 해녀유산 159명(26.1%), 방어유산 87명(14.3%), 생활유산 57명(9.4%), 기록유산 47명(7.7%), 인물유산 46명(7.6%), 신앙유산 41명(6.7%), 축제 40명(6.6%), 어로유산 39명(6.4%), 전승유산 38명(6.2%), 건축유산 29명(4.8%), 전시관 19명(3.1%), 콘텐츠 7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중점을 두어야 하는 보존정책(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인물유산	46	7.6
방어유산	87	14.3
건축유산	29	4.8
기록유산	47	7.7
신앙유산	41	6.7
어로유산	39	6.4
해녀유산	159	26.1
전승유산	38	6.2
생활유산	57	9.4
전시관	19	3.1
축 제	4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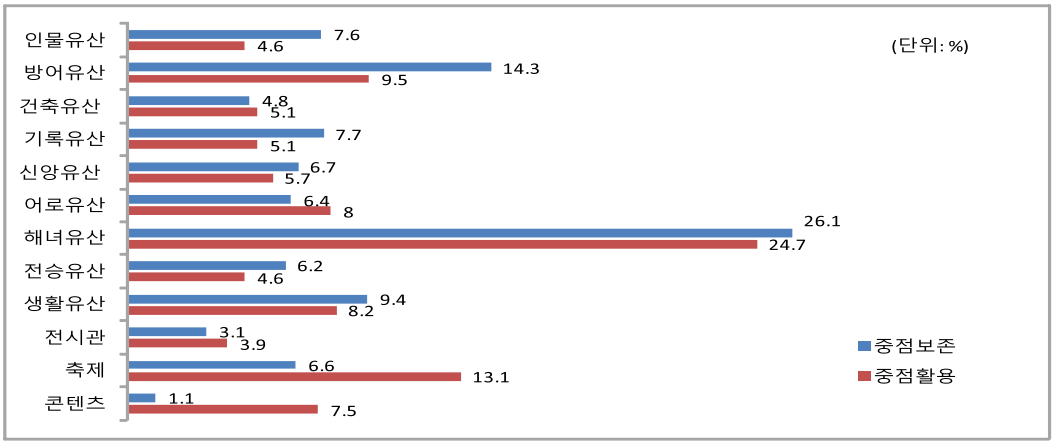
콘텐츠	7	1.1
합 계	609	100.0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용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 해녀유산 150명(24.7%), 축제 80명(13.1%), 방어유산 58명(9.5%), 생활유산 50명(8.2%), 어로유산 49명(8.0%), 콘텐츠 46명(7.5%), 신앙유산 35명(5.7%), 건축유산과 기록유산이 각각 31명(5.1%), 인물유산과 전승유산이 각각 28명(4.6%), 전시관 24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용정책(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인물유산	28	4.6
방어유산	58	9.5
건축유산	31	5.1
기록유산	31	5.1
신앙유산	35	5.7
어로유산	49	8.0
해녀유산	150	24.7
전승유산	28	4.6
생활유산	50	8.2
전시관	24	3.9
축 제	80	13.1
콘텐츠	46	7.5
합 계	610	100.0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정책 중요도의 비교 결과 해녀유산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보존정책(26.1%)과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용정책(24.7%) 양쪽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보존정책 2순위는 방어유산(14.3%)이며,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용정책에서는 축제(13.1%)가 2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8] 보존과 활용정책 중요도 비교

4.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자산화 방안

제주 도민들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제주 도민들은 해양문화자원이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미래자원의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항목별로 중요도가 높은 응답 결과를 보면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관된 정책 유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자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문화자원 관련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주도의 해양문화자원 지원 방향은 주로 해양 관리와 해녀문화 보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관련 조례로는 '해양산업 육성, 수산자원 관리, 해양(해안)경관 보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자원화 방안, 체계적인 전승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조례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제주도의 특성상 해녀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적절해 보이나 해녀문화산업 활성화에만 치우칠 경우 해양문화 관련 지원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 도민들의 인식 측정 결과에도 잘 드러난다.

제주 도민들은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해양문화자원 각각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성은 물론 도민들에게 노출되는 접촉빈도, 상품개발 수준 등을 통해서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방향과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인지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해양유산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면서 균형 잡힌 해양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 도민들은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부분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즉 해양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우선 활용 방안이 미흡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려면 우선 활용해야 하는 자원의 경우 자원 고유성에 따라 선택 속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도 해양문화자원 속성을 고려하여 정책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주 해양문화자원 보존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문화의 가치를 전승하고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주체의 측면에서 단계별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해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유산과 활용 영역을 구분해야 하고, 일부 사람들의 인위적인 보존과 활용 의지가 지양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Ⅳ. 결론

제주 해양문화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원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원

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한 결과이다.

이에 제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귀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제주도는 섬지역의 특성상 지정학적 조건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인식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점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해양문화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 해양문화정책 추진 시 정책 목표와 추진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해양자원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양문화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영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한다. 제주 도민들은 해양문화자원이 제주의 정체성을 확인·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정도는 지역과 연령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해양문화자원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주 해양문화는 '제주인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양문화자원이 해양관광 등 경제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해양교육시스템 정착' 및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섬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특히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행정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활용의 측면에서도 제주도의 일부 해양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으나 해양문화자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전수조사는 아주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별, 연령별 인식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면 해양문화자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해녀학교 등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양자원의 생성과 소멸, 제주 도민과 해양문화, 미래 해양문화 활용 방안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찰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자원들도 모두 소중한 제주의 자원이므로, 시민교육 확대를 통해서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봉옥·김지홍 뒤침(2001),『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김창수(2012),『인천 해양생활사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김태일 외(2008),「아름다운 불빛 제주 등명대」, 제주시 건입동사무소·주민자치위원회.

노시훈(2013),「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프랑스 해양축제를 중심으로」,『프랑스문화예술』43, pp.217∽241.

문순덕·김석윤(2018),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문순덕·박찬식(2013),『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북제주군의 문화유적(1)』.

서귀포문화원(2008),『우리고장의 비석들』.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2000),『서귀포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이덕희(1997),『제주의 도대불』, 도서출판 가시아히.

이순자·장철순·박경현·장은교(2012),『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제주교육박물관 역, 이원조 저(2008),『탐라지초본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2),『제주시 비석 일람』, 제주시.

제주문화원(2008),「제주시 옛 등대 애월리 배무숭이 소금밭 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2019),「2019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개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20),「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

제주특별자치도(2016),『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해양수산부(2015),『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계승 및 활용 방안 연구』.

홍장원·윤인주·최일선·이정아(2017),『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lighthouse-museum.or.k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eamuse.go.kr)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http://www.knmm.or.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